

# 13년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7%대... '이자 폭탄' 어찌나

###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 잇따라 올려...내년 9% 근접 가능성도 변동금리 광주·전남 중기·'영끌' 서민 한계 압박...대책 마련 시급

기준금리가 잇따라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곧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모아 집을 산 입주자들과 경기불황에 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올해 8월 광주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직장인 김모(40)씨도 사정이 같긴 마찬가지다. 실거주 목적으로 4억5000만원대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김씨는 주택담보대출에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을 받았

다.

그는 "5년 고정인 주담대 금리도 5%에 육박해 부담스러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계속해 오르고 있다"며 "월급남이면 대출 상환으로 돈이 다 나가버려 외식이나 쇼핑 등 다른 소비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202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조업 사업에 뛰어들어 나모(43)씨도 치솟는 대출금리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초기 공장 설비 투자를 위해 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지난 달에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주담대 3억원 상당을 또 빌렸다고 한다.

나씨는 "2개월 전부터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매달 인건비에 공장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도 빼듯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 회사도, 가계도 빚 부담이 너무 크다"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들은 물론, 기업들까지 빚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눈높이가 높아지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당초 예상대로 내년 초 3.50% 안팎(현재 3.00%)에서 멈추지 않고 상반기까지 이어져 낮게는 3.75%, 높게는 4.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6일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약 13년 만에 모두 7%를 넘어선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연 5.160~7.646%, 5.350~7.374%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6.100~7.550%, 대표적 서민 대출상품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도 5.180~7.395%로 이미 7%대 중반에 이르렀다.

만약 은행권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지금(3.00%)보다 최소 1%포인트 더 뛰어 내년 상반기 4.00%를 넘어설 경우, 대출금리 상단도 8%를 뚫고 9%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전남 예금취급금융기관 가계대출 잔

액은 58조10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조9201억원)보다 1818억원(0.30%) 늘었다.

또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광주·전남 기업 120개사 중 75.0%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3곳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얘기다. 이 가운데 97.5%가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추후 금리인상의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한 번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만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지금도 원리금 상환에 한계를 맞은 가계와 기업이 속속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폭과 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과 서민 가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올 대부업 이용 10만여명...3040 '최다'

### 2017년부터 올 상반기 6만8000명... '생활비' 목적 508만2000원 빌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취약 계층의 은행 등 1금융권 이용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운데 대부업에 올해 10만여명이 몰려 취약계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부위원회 양정숙 의원의 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부업 이용자는 170만9000명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10만3000명이 이용했는데 이 가운데 30대와 40대가 3만5000명과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와 50대가 각각 1만6000명, 60대 이상도 3000명이나 됐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대부업 이용자의 평균 대부 기간이 길어지고 액수 또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업의 최고 금리 20%에 이르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부 기간은 전 연령층에서 40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됐으며 대부 목적은 생활비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평균 대부액은 508만2000원, 평균 대부 기간은 43.3개월이었다.

평균 대부액의 경우 2017년 454만2000원에서 2018년 485만5000원, 2019년 461만3000원, 2020년 472만4000원이었고 지난해 522만7000원으로 500만원대를 넘더니 올 상반기는 653만원으로 600만원대에 이르렀다.

평균 대부 기간 또한 2017년 44.7개월, 2018년 45.4개월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41.9개월, 2020년 41.4개월, 지난해 42.1개월, 올 상반기 44.3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 상반기에 50대의 평균 대부액이 771만1000원으로 최다였고 40대(757만

4000원), 30대(707만원), 60대(653만원), 20대(564만9000원) 순이었다. 평균 대부 기간은 40대가 49.1개월로 가장 길었고 50대(48.3개월), 30대(47.8개월)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대부업 이용 속에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은 1만6098건에 달했다.

대부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채권 추심'이 주를 이루며 정부의 다양한 규제에도 아직 많은 이용자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도 많았다.

양정숙 의원은 "사회에 처음 진출한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대, 40대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면서 "빛에서 시작해 빛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철뉴스



인재육성 멈추지 않는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최근 영광군청을 찾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의 영광 인재육성기금 출연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임경준(왼쪽 세번째) 회장과 김이강(왼쪽 네번째) 서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중기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기여 중기중앙회, 광주 서구·남구의회에 감사패

로또복권 (제1040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11	
8	16	26	29	31	36	1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660,482,625	7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67,786,716	63
3	5개 숫자일치					67,786,716	2,583
4	4개 숫자일치					50,000	133,245
5	3개 숫자일치					5,000	2,235,373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4일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김군호 서구의원, 황경아 광주 남구의회 의장과 노소영 남구의원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2020년 5월 여수시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해 현재 전국 67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광주에서는 2021년 10월 광산구와 2021년 12월 북구에 이어 올해 서구와 남구에서도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기술개발, 해외진출,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구 매월동에 있는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다. 골목상권의 수퍼마켓들이 대형마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은 대기업제조사와 공동구매를 통해 유통단계를 효율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역 수퍼마켓에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합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3·30 위기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산업진흥회, 광융합산업 통계조사 전문기관 자리매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융합산업 통계조사'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다지면서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광산업진흥회는 2004년부터 매년 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광주 광산업집적화단지 조성·산업기반 활성화 등 광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광융합산업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계사업의 핵심은 지역 내 광융합산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으로 외부 의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사를 시행한다. 단순 지역 광산업 통계조사 분석이 아닌 통계조사를 통한 산업의 실태, 만족도조사, 현황 및 전망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광주지역 광산업통계 조사 결과는 타지역 대비 우수한 지역 광산업 클러스터 인프라를 내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진흥회의 설명이다.

또 해외 광융합산업 시장 관련 정보자료 약

750여권을 구축해 광산업 선진 기술 수준 및 제품 트렌드 분석 등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미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정부과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20여건 정부 과제를 수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정철동 진흥회장은 "광융합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의 생산, 활용도 및 신뢰도 강화를 통해 광융합 산업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진흥회는 통계청에 통계작성 지정기관 신청하여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 위상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승인 통계 기관으로 지정되면 통계청에서 승인된 자료로 신뢰성 확보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동력인 광융합 기술 중합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첨단산업 스마트도서관 개관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내 스마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근무 시간 중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산단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 북구와 협업체 광주첨단산단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비대면 무인도서 대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도서관은 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1층에 구축됐으며,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 250여권을 비치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광주시 북구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이나 공공도서관 이용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회원증을 비대면으로 발급받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서는 1인당 3권까지 최대 2주간 대여할 수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그동안 일과시간 중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광주첨단산단 근로자 2만여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 북구 측에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을 제안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6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광주첨단산단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했다.

황상현 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그동안 광주첨단산단은 도심과의 거리로 인해 근로자의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는 등 문화여건이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며 "스마트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산업단지 독서문화 접근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